



# “낮과 밤이 다른 전무후무 캐릭터”

tvN ‘또 오해영’ 수경 역 이지원

“수경이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캐릭터예요. 낮과 밤이 다른 이 여자가 과연 동일 인물로 보일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촬영하면서 수시로 ‘한 인물로 보여요?’라고 질문했어요.(웃음)”

이지원(43)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tvN 월화극 ‘또 오해영’에서 가슴 속에 열정을 품고 사는 도도한 노처녀 이사 박수경으로 인기몰이 중인 그를 최근 인터뷰했다.

“외계인이 언제 온대냐”며 술 취한 채 불어로 중얼중얼대고, 육하면 자동으로 발차기가 튀어나오는 이 ‘헐기방장’한 40대 이상남의 라이프스타일이 요즘 시청자를 흥겁게 만든다.

이지원은 “작품이 워낙 좋아서 많이 공감하겠다고 싶었지만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다. 감사할 따름”이라며 활짝 웃었다.

“수경은 낮과 밤이 다른 전무후무한 캐릭터다. 근엄한 대기업 이사이인데 밤만 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불어로 중얼거리는 수경이가 과연 한 인물로 보일까 걱정했고 공포감도 있었다.(웃음) 또 술을 먹든, 안 먹든 자기 얘기만 하는 애다. 나이는 있지만 하는 짓을 보면 철이 없다.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특하면 발차기도 날린다. 연기하면서도 너무 웃기고 너무 재미있다. 수경이의 상반된 모습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수경이가 술 취해서 물을 페트병째 피마시는 묘기가 놀랍다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내 위가 큰 것 같다.(웃음) 물을 그렇게 마시는 건 ‘올드 미스 다이아리’때 이후 처음 해보는데 11년 만에 다시 시도하면서 과연 될까 싶었는데 되더라. 그래서 기뻐다. 하하. 페트병 원샷에 발차기 등을 하면서 내가 아직

되구나, 젊구나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잘 마셨지만 요즘은 촬영 때문에 거의 안 마셔요. 방송은 바스트를 잡기 때문에 술 마시고는 무서워서 촬영 못해요.(웃음) 전성기 때야 잔 수를 안 세고 마셨죠. 워낙 체력이 좋아요. 그런데 수경이랑 달리 혼자서는 술을 안 마셔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수경이처럼 혼자서 3만cc를 마시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웃음)”

서츠를 들어 올려 머리에 걸친 채 속옷을 보여준 박력 넘치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탄탄한 복근과 함께 여성들이 반했다.

이지원은 “이상 피팅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냈는데 채택이 됐다.(웃음) 스포츠브라였기 때문에 창피한 느낌은 없었고 장면의 내용상 재미있겠다 싶었다. 그 신 앞두고 좀 굶었다.(웃음) 극중에서 입고 나오는 옷의 70%가 실제 내 옷이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더 바쁜 면도 있다. 연기 준비하면서 의상도 준비해야하니 바쁘네. 내 옷이라 수경이의 느낌을 더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스포츠브라 장면에서 입고 있던 바지는 내가 2011년 영화 ‘더키’ 때 입었던 옷이다. 태국 바지인데 느낌이 살지 않나? 티셔츠는 너무 자주 입어 약간 색이 바래버린 옷이다. 내게 특이한 옷이 많은데 이번 작품에서 그걸 다 써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했다.

김지석과 광란의 춤을 추 장면도 압권이라는 물음에 “개인적으로는 신이 되게 웃길 줄 알았는데 나는 수경이 생각에 슬프더라. 요즘 연극 ‘홍도’의 지방공연을 함께 하고 있는데, ‘홍도’에서 슬랩스틱 코미디가 많이 나온다. 그걸 몇개 차용해서 수경이

연기할 때 써먹고 있다. 처음에는 지방공연과 드라마 촬영을 병행하는 게 힘이 부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시너지가 되고 있어 너무 기쁘다. 지석이가 날 들어올린 장면은 영화 ‘더티댄싱’을 본 뜬 것이다. ‘더티댄싱’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물에서 들어올리는 장면인데 항상 해보고 싶었다. 세트에 책장이 있길래 책장에 발을 대고 비슷하게 연출해봤다.(웃음)”고 밝혔다.

“수경이가 밤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집안 내력이 복잡하다보니 억눌려 있는 게 많은 데다 남자한테 차이기까지 해서 그런 거였다. 술을 마시는 게 아니면 달리 풀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술 취해서 남동생 친구랑 사고를 쳤으니 이를 어쩌면 좋나.(웃음)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나? 남동생 친구랑 사고를 치는 게 말이 되나?(웃음) 압튼 그 덕에 이제부터 수경이의 감정 신과 비중이 좀 더 커진다. 기대해달라.”

불어와 발차기가 인상적이라는 질문에는 “서울 예대 다닐 때 프랑스 영화를 많이 보면서 불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후 프랑스에 놀러 갔다가 그 길로 3개월 놀러와야 개인 레슨을 받기도 하는 등 불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프랑스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내가 불어를 배우고 있으면 ‘너 영어는 할줄 알아?’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지 모르겠다. 불어를 했더니 이번 작품에서도 잘 써먹고 있지 않나. 태권도는 ‘더키’ 찍을 때 2단까지 뒀다. 불어도, 태권도도 안 배웠을 어쩔 뻔 했을까 싶다. 반응이 너무 좋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굿바이’ 음악대장

하현우 10연승 앞에서 복면가왕 하차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음악대장’의 시대가 저물었다.

5일 오후 4시55분부터 방송된 MBC TV ‘일밤-미스터리음악쇼 복면가왕’의 31대 가왕전에서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하 음악대장)은 도전자 ‘하면 된다 백수탈출’에게 패배했다. 이로써 최장기 가왕으로 군림했던 ‘음악대장’의 10연승 달성은 무산됐다.

20주 만에 가면을 벗은 ‘음악대장’ 정체는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국카스텐 보컬 하현우(35)였다. 국카스텐은 2001년 결성돼 2008년 데뷔한 4인조 록밴드다.

하현우는 “살면서 이런 행복을 또 느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무대에 설 때마다 공포감과 부담감을 느꼈지만 관객들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면 된다 백수탈출”은 충분히 이 자리에 앉을만한 분”이라면서 “이제 새로운 가왕이 새로운 행복과 즐거움을 드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현우는 지난 1월31일 기존 가왕인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22대 가왕에 올랐다. 그는 지난 4개월간 ‘격정 말야요 그대’(전인권), ‘불비’(박인수), ‘하어가’(서태지와아이들) 등 다양한 곡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독주했다.

고(故)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로 7연승을 달성한 4월24일 방송부터는 그가 명예로운 퇴진을 모색 중이라는 주장도 일부 팬 사이에서 나왔다.

‘음악대장’은 이날 방송에서 그룹 공일오버의 ‘이주 오래된 연인들’(1992)을 불렀다. 판정단은 이은미 ‘늑단’을 부른 ‘하면 된다 백수탈출’의 손을 66대 33으로 들어줬다.

31대 가왕에 오른 ‘하면 된다 백수탈출’은 “(가왕의) 저 왕자를 반짝반짝 닦고, 가운도 안 망가지게 보존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하현우가 ‘복면가왕’에서 부른 ‘라젠카, 세이프 어스’와 ‘일상으로의 초대’, ‘민물장어의 꿈’ 등 신해철의 노래 3곡이 이날 박스 등을 통해 음원으로 출시됐다. 고인의 부인인 윤원희 씨는 “‘음악대장’의 인상적인 무대에 감동했다”면서 “그 덕분에 많은 시청자가 남편 작품을 다시 접하게 된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55 중계방송 제6회 현충일 추념식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1박2일 (하일빈 특집)	30 MBC 생활뉴스 50 중계방송 제6회 현충일 추념식	10 좋은 아침 55 중계방송 현충일 추념식
10	35 현충일 특선 앙코르 백년의 유산		40 복면가왕 스페셜	40 SBS 뉴스 50 특별기획 (미녀 공심이)(재)
11	25 영상앨범 산 55 안녕 우리말(재)			
12	00 KBS 뉴스 12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MBC 뉴스	50 닥터365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특선영화 (알투바: 리턴투베이스)	0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00 진짜 사나이 스페셜	55 세상발전 유레카
2	45 코리안 지오그래픽 플러스	45 주말연속극 이이가 다섯 로맨틱스페셜	55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한번에 몰아보기	55 TV블로그 품지락
3	05 다류 공감			00 SBS 뉴스 10 울대 스키이트 2016
4	00 4시 뉴스집중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5 MBC 뉴스 4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5	00 KBS 뉴스 10 KBS광주 연속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판타스틱 듀오 스페셜 판타스틱 7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건강문록 남도에 살아라
7	00 KBS 뉴스7 35 현충일 특집 우리들의 집, 현충원	00 현충일특선영화 (연평해전)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4개국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대회 (대한민국: 덴마크)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	
9	00 KBS 뉴스9	2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현충일 기획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10 미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관촬아 관촬아
12	20 해외결장드라마 (닥터 포스터)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특선 2016 메이저리그 특집 코리안 메이저리거, 야수가 되다!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가능 한국인 (김치는 내 운명 김치 제조 김순자)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김치의 여드벤처)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여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디블즈	09:40 라이벌 토코 부모 (우리 집 책벌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열무김치와 열무물김치)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현충일 특선 영화 (고지전) 14:25 지식채널 e 14:30 뽀롱뽀롱 부러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꼬마기사 마이크 15:4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4 (마루의 여드벤처)(재)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여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여섯 번 보따리를 싸던 며느리의 속사정)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이탈리아 르네상스 기행 1부 신에서 인간으로, 르네상스) 21:30 한국기행 (두근두근 남산로 1부 사랑을 품은 길 재현 자드락길) 21:50 EBS 다큐 프리큐 (생존의 비밀 1부 은밀한 사냥꾼, 호랑이)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간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특별기획 통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6일(음 5월 2일 己未)
子	48년생 바람만 달리해도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60년생 뻥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느니라. 72년생 결코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84년생 필연적으로 격돌할 수밖에 없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02, 20	42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54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66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원리를 명심하자. 78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5, 33
丑	49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긴요한 문제이다. 73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니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85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9, 03	43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55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말라. 67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79년생 잠 못 이루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50, 17
寅	50년생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62년생 생각하고 있는 바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라. 74년생 실재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6년생 풍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9, 64	44년생 조짐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면역할 수 있을 것이다. 56년생 활발한 움직임이 보인다. 68년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좌충우돌할 게 뻔하다. 80년생 효과와 기능을 배가하는 특별한 상황이 설정되리라. 행운의 숫자 : 53, 14
卯	51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으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63년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때다. 75년생 안전을 도모한다면 대고를 면할 수도 있다. 87년생 공을 들여야 성과를 볼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7, 37	45년생 집진적으로 회복세를 띠는 단계에 진입한다. 57년생 길흉이 교차하면서 부침이 심할 수도 있다. 69년생 실제로 훨씬 돈보일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81년생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7, 41
辰	40년생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52년생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64년생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76년생 나중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88년생 깊은 시러가 깃들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98, 86	46년생 직접 접해 봐야만 알는 바가 있느니라. 58년생 아주 가까이 에 의와 있으니 철저히 대응할 준비를 하자. 70년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세임을 알아야겠다. 82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행운의 숫자 : 25, 52
巳	41년생 가슴이 실제의 상황어 된다. 53년생 다수인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65년생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양상이다. 77년생 전폭적인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89년생 첫 번째의 건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하다. 행운의 숫자 : 11, 47	47년생 더 약화 되지는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59년생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좌우되리라. 71년생 본능적이라면 손해 보기마련이니 이성적 판단에 따르라. 83년생 호수연할 곳을 찾게 되는 역할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4, 0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hel” ☎010-9790-8237